

# 로컬푸드의 건강성을 거래하는 직거래 장터 베이 에비뉴(Bay Avenue)

두바이지사

## 집에서 키운 농산물을 사고팔다

- 지난 11월 2일부터 두바이 베이 에비뉴(Bay Avenue)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렸다. 어느덧 10회차를 맞은 이번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,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7시간 동안 운영된다.
- 베이 에비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집에서 키운 야채와 과일, 수제 잼과 제과류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, 소비자와 지역 농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.
- 참가기업 중 하나인 유명 푸드샵 베이커 앤 스파이스(Baker and Spice)는 지역 농부들에게 공급받은 유기농 농산물로 페이스트리, 빵, 케이크, 수제 잼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, 이번 베이 에비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유기농 제과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.



두바이 Farmers Market

- 유기농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'건강'이었으며 유기농 유제품기업 알라푸드(Arla Foods)는 아랍에미리트 소비자들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식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.

##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가는 유기농 시장

-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'YouGov'에서 유기농식품 구매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, 지난해와 비교해 아랍에미리트 거주민들의 유기농식품 구매수요는 38%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. 또한 소비자의 61%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유기농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

## 소비 추세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해야

- 농산물 유통 및 소비현황에도 드러나듯이 아랍에미리트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.
- 날씨가 온화해지는 11월을 기점으로 베이 에비뉴를 비롯한 두바이 각지의 야외시장에서 유기농 농산물 및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,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유기농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필요가 있어보인다.